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이 춘 섭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한나 (원장)
	정 선 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정 정 아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총 회 장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성탄 및 송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25일 (일)	성탄 대축일	10:30, 12:00, 13:00(유초등부), 19:00 (6:30 미사는 없습니다.)
31일 (토)	아침미사	아침 6:30
	송년미사	저녁 8시 (저녁7시 미사 없습니다.)
2023년 1/1(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06:30, 10:00(중고등부), 10:30, 12:00, 19:00

● 회 의

- 사목협의회
 - 일 시 : 12월 29일(목), 19시 40분
 - 장 소 : 강 당

●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 시 : 1월 6일(금), 저녁 미사 후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 1월 7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영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위령봉사회	1월 1일(일), 11:40	강 당
M.E.	1월 1일(일), 11:50	6교실
제대회(현화회)	1월 3일(화), 10:30	2교실
성모성심회	1월 7일(토), 18:00	강 당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 주일반(일, 오전 9시), 평일반(화, 오후 8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돈 보스코 오라토리오 직원 모집

- 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는 분
-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근무시간 : 오후 13:00 ~ 오후 19:00
- 문 의 : 010-6263-0131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향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11월 30일 현재 ₩20,050,000 납부되었습니다.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

1. 미사 참례 의무 : 모든 주일과 의무 대축일
2. 금육과 단식 의무
 - 금육 : 연중 매주 금요일과 재의 수요일
 - 단식 : 성금요일과 재의 수요일
3. 고해 성사의 의무 : 부활과 성탄(판공성사)
4. 영성체의 의무
5. 혼인성사의 의무
6. 교무금과 헌금 납부의 의무
 - 성당의 유지와 사업을 위해 가정 단위로 교무금을 내야하고, 헌금을 각자 정성껏 봉헌합니다.

● 다음 주일(1/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1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2월 14일 ~ 12월 20일)

• 교 무 금		8,905,000원
• 주일헌금		4,687,200원
•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1,569,000원
	지경자 3만원	장원재20만원 박갑순 5만원
	임연님 5만원	동○○ 1만원 오영자 5만원
	이형순 5만원	정봉순 5만원 김민석10만원
	박길순 3만원	김진수20만원 홍정임 5만원
• 감사헌금	최영만30만원	이균성20만원 정도점10만원
	김종란20만원	황금옥 5만원 차경관20만원
	김철연10만원	염금선30만원 황정후10만원
	강정자10만원	박상덕30만원 심진보20만원
	조성옥 5만원	12구역국수잔치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2/25	이영민	신종구	최상림	최웅조	구민서
1/1	이인옥	심재순	오성환	장익근	김보금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12/25	박형순	이운영	오광운	최석준	장인홍
1/1	김인기	박승환	김광수	김영배	옥윤필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245. 저는 여러 차례 “사회적 우애를 이룩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곧 일치가 갈등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 연대는 혼합주의나 일방적인 흡수가 아니라 오히려 귀중한 양립 가능성을 보존하는 더 높은 차원의 결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개별 관심사보다 훨씬 숭고한 것을 지향하는 법을 배울 때마다, 이해와 상호 약속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 이것이 갈등과 긴장이 그리고 과거에 적대적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이들도, 새로운 삶을 낳는 다면적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배경입니다.”

기억

246.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용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증진할 의무가 사회에 있다 하여도, 아무도 사회 전체에 화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회와 사회 정의가 합법적으로 처벌하려 하여도, 누군가는 자유롭고 너그러운 결단으로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으로 상처들을 싸매거나 망각의 외투로 불의를 덮으려고 애쓰면서 ‘전반적인 화해’를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다른 이들의 이름으로 용서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입은 피해를 넘어설 줄 아는 일부 사람들이 지닌 용서의 능력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도 인간적입니다. 어떤 경우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247. 쇼아(Shoah,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이끌려, 출신 민족이나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무조건 존중받아야 마땅한 인간의 기본 존엄을 망각해 버릴 때, 인간의 악행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상징입니다.” 이 대학살을 기억하며 저는 다시 한번 다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자비로 저희를 기억하소서,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 인간이 저지른 악행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거대한 우상을 치욕으로 여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시고 주님 생명의 숨결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저희 몸을 경시하고 파멸시킨 것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결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소서!”